

News

4대 은행, 예·적금 금리 일제히 올렸다... 최대 0.4%p ↑

머니S

4대 시중은행, 모두 예적금금리를 최대 0.4%p 인상... 26일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29일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예적금금리 인상
농협 등 다른 은행들도 예적금 금리 인상을 계획 중... 빠르게 올린 배경으로 최근 불거진 은행권 금리 논란에 따른 것... 금융당국, 은행의 예대금리차 예의주시

연말 다가오는데...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10%대 불과

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대출 비중 3분기 기준 10%대... 연말까지 20% 넘기겠다고 한 것에 비해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중·저신용대출 비중 9월 말 잔액 기준 각 13.4%, 13.7%로 집계... 토스뱅크는 아직 공시할 내용 없는 상태

마이데이터 사활 건 지방은행

디지털타임스

지방은행들, 마이데이터 사업 유치전에 사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영업점 감소 등의 상황에서 경쟁력을 얻을 기회이기 때문
JB금융, 내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자 허가를 받지 못한 부산·경남은행은 쿠론과 제휴해 내년 1월 서비스 출시 예정

'민영화' 우리금융 첫 작품은 MZ 플랫폼

매일경제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첫 행보로 MZ세대 플랫폼 사업... 동 사업에만 향후 1조원 이상 쏟아부을 계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도 조성...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 인수·합병에 나서는 등 투 트랙 전략 취할 방침... 중소형 증권사를 인수해 합병후 MZ세대 플랫폼 성장 계획

보험 주담대 금리 '최저 2%대' 실종 '최고 5%대' 늘어

보험매일

주요 보험사들, 보편적 차주에 대해 변동금리형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47~5.33%로 운영한다고 공시
신용대출 금리도 오름세...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시장금리 상승과 금융당국 대출 총량관리 영향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이 업계 설명

하나생명, 1000억원 증자...재무건전성 강화

매일경제

하나생명, 이사회를 통해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의... 다음달 중순께 주금 납입과 증자 등기를 마칠 예정
이번 증자가 마무리되면 자기자본은 3,140억원 → 4,140억원으로 증가... RBC비율은 153% → 200%로 오를 예정...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 기틀 마련

3분기 증권사 순이익 2조5162억원...전분기비 10.5% ↑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의 지난 3·4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10% 넘게 증가한 반면,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9%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58개 증권사 분기순이익 2조 5,162억원... 대형사의 경우 RP 매도, 파생결합증권 발행 등 적극적인 자금조달로 레버리지 비율 높아... IB 및 자기매매 부문 수익 증가했기 때문

기준금리 인상에 증권사 이자도 들썩... '빚투 개미' 초비상

조선일보

증권사들, 금리 인상기에 신용거래용자 금리 인상 카드 만지작... 빚투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 늘어날 전망
DB금융투자, 다음달 1일부터 신용거래용자 금리를 1~7일 기준 연 5.25%에서 5.46%까지 인상할 계획... 아직 다른 증권사들은 공식화한 곳은 없지만 가능성 존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